

전남대병원 '새 병원' 건립 급물살



전남대병원은 수도권 병원과의 시설 및 서비스 격차 등으로 인해 새병원 건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전남대병원 전경. /김진수 기자 jeans@

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 대표가 새병원 건립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힘에 따라 지역민의 숙원인 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중 정책위의장, 김성원 예결위 간사, 양금희 원내대변인, 광주·전남·북 시·도당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는 지난 18일 오후 광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 의결 등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권성동 대표는 "40년이 넘는 노후한 전남대병원 공간을 최첨단 의료인프라를 갖춘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으로 전환해 시·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1조20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만큼 예산 당국에 부탁해 1차적으로 예비타당성 대상에 집어넣었다. 신속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을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또 성일중 정책위의장은 "의료 문제는 중요한 문제다. 전남대병원 개선을 제일 앞으로 빼서 전남대병원을 4차산업 혁명시대 혁명 기지로 만들고, 호남 의료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상당히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경제 타당성 충분한 새병원 건립, 기재부 예타 제출 =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은 지난 2020년 11월 취임한 안영근 병원장이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추진단을 발족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난해 1월 발족한 추진단은 새병원건립추진위원회, 새병원 건립추진본부, 새병원건립추진자문단 등 3개 조직으로 구성돼 ▲주요 정책 의결 ▲사업 실무 총괄 및 추진 방안 마련 ▲주요 정책 및 현안 자문, 건립 사안 후원 등 역할을 수행했다.

추진단은 새병원 부지 선정을 위해 자체적으로

뉴 스마트 병원 예타 호재 잇따라
1300병상·1조2천억원 사업비
국힘 권성동 대표 "적극 돕겠다"
안영근병원장 "수도권과 격차 해소"

시행한 설문조사와 경제성·접근성 등 주요 사항에 대한 20차례의 회의를 거쳐 전남대 학동캠퍼스 부지에 새병원을 건립하기로 지난해 11월 발표했다. 전남대병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1년간 사전타당성 분석에 나선 결과, 경제적 타당성(B/C) 역시 2.15를 받음에 따라 지난 6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14년간 추진 = 노후화된 병원의 물리적·구조적 한계를 극복한 미래형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은 1300병상, 연면적 27만㎡(8만1675평)에 달하는 규모로 오는 2037년까지 14년간 1조2146억원(국고 2760억원, 자부담 938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새병원은 1단계(동관 건물)로 오는 2030년까지 전남대의 학동캠퍼스와 전남대 간호대학 부지에 700병상 규모로 신축건물을 완공한 후, 기존 1동·3동의 진료기능과 어린이병원(6동) 및 부속동(2동)의 진료기능을 이전할 계획이다. 2단계(서관 건물)는 오는 2037년까지 1동·2동·3동·5동·6동 및 제1주차장을 철거 후, 해당 부지에 600병상 규모 병원을 신축해 개원하게 된다. 신축 후 8동의 권역의상센터와 응급센터 등의 진료기능을 이전하게 된다.

이같은 새병원 신축은 급속한 의료환경 변화 및 노후화된 시설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전남대병원의 1동과 2동은 40년 이상 노후화됐으며, 특히 1동은 44년 된 건물로 국립대병원 주요 진료

동 중 가장 오래됐다. 특히 전남대병원은 외래와 검사실, 병동과 수술실 등 모든 의료기능이 동별로 분산돼 있어 이동거리가 길고 복잡한 동선으로 환자들의 불편은 해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특히 공간이 중복돼 있어 더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할애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되고, 중환자실 운영 비율은 전국 최상위권이지만 분산된 중환자실로 인해 환자 통합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다.

또 지역거점 국립병원으로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건강수준 격차를 해소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었다. 인구 10만명 당 치료가능 사망률(2019년 기준)은 서울이 36.36명에 불과하지만 광주 39.12명, 전남은 44.08명에 달하며, 뇌혈관질환 사망률(2019년 기준) 역시 서울은 33.6명, 광주 34.9명, 전남은 무려 71.2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광주·전남 권역과 수도권간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수와 중환자 사망률 역시 차이가 극심해 인구 1000명 당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수는 ▲서울 2.1개 ▲대구 1.3개 ▲부산 1.3개 ▲광주 0.6개에 불과하다.

더불어 수도권의 대형병원들은 스마트병원으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신·중증이 완료됐거나 새병원이 완공된 병원 역시 늘어나면서 수도권 지역 병원과의 서비스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중앙대광명병원은 최근 개원했으며, 시흥배곧서울대병원·고려대의료원·한양대병원 등이 새병원을 건립 중이거나 계획 중이고, 건국대병원·이대목동병원·삼성서울병원 등은 중축을 계획하고 있다.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새병원은 미래형 의료시스템 구축으로 디지털시대 보건으로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도권과의 건강격차 해소에 나설 것"이라며 "진료과 위주 진료에서 센터 중심의 진료로 전환은 물론 응급실 확충, 수술실 증설을 통한 수술 적체 해소, 중환자실 집중화, 암센터 개설을 통해 환자 유출 방지 등의 목적으로 구성·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희중 기자 cae@kwangju.co.kr

광주시의 '전략 부재'

복합쇼핑몰 사업 '트램 끼워넣기' 논란 키워

국민의힘과 정책협의회사
9000억원대 요청했다 면박만

광주시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 최대현안으로 떠오른 '복합쇼핑몰'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9000억원 규모의 트램 등 '뜬구름 잡기식' 전략(본보 2022년 7월 19일자 1면)을 들고 나와 논란이다.

트램 설치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검토해온 신규사업으로,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안에도 군공항교통국 내에 트램 건설·운영 업무를 끼워넣는 등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로부터 트램 등을 포함한 복합쇼핑몰 예산지원을 요청 받은 국민의힘은 물론 지역 시민사회마저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시작된 도시철도 2호선도 예산난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가뜰이나 교통혼잡 구간에 교통난을 가중시킬 수 있는 트램이라는 것이

다. 시민모임인 '대기업 복합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시민회의)는 19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가 공개한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의 실체는 '메타 N 콤플렉스', '톱 오피스 톱' 방식이라는 현란한 단어를 나열했으나 결론은 트램 등 9000억원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뜬구름 잡기식 사업 타당성에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트램 설치를 연결해 국비 지원을 요구하니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시민회의는 또 "복합쇼핑몰을 놓고 정부와 줄다리가지 말고 (예산난에 부딪힌)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완공을 위해 정부와 대차게 싸워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는 광주시가 지난 18일 국민의힘과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복합쇼핑몰 지원 사업으로 디지털 기반 광역 통합 유통센터(3000억원), 트램·도로 등 연결망 구축(6000억원) 등 총 9000억원을 요청한 것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광주시는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과 전방-일신방직을 거쳐 중합버스터미널과 농성역까지 2.6km 구간을 잇는 수소트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는 뒤늦게 복합쇼핑몰 유치가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을 활용해 지역내 부족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전략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사업 규모나 절차 등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내에서도 도시철도 2호선이 10년 넘게 시민공론화와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는 점을 들어, 단 한차례의 시민협의과정조차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추진중인 트램 사업을 비난하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선 걸은 시민의 교통 편의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복합쇼핑몰 사업자 측에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광주시가 트램 등 설치를 통해 복합쇼핑몰 신규사업자의 최대내제로 꼽히는 접근성, 교통 환경 영향 문제를 해결하고, 광역 유통센터로 소상공인과의 갈등까지 해결해주는 특혜성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입지 선정과 정부 지원 협의를 해 나가면서 특혜없이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반도체 인재 10년간 15만명 키운다

관련학과 최대 5700명 증원

정부가 교수를 확보한 대학은 반도체 관련학과 신·증설을 통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풀어 10년간 반도체 인재 15만명을 키우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학과 학부 정원이 1300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수도권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코로나 계속되는 더블링에 자율방역 우려 ▶2면

도심 속 경로당은 할머니들의 최고 피서지 ▶6면

우상혁, 높이뛰기 세계선수권 은메달 ▶18면

다.

교육부는 반도체 전문 인재를 키우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이들 정부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첨단산업인재 양성 특별팀(TF)을 꾸리고 정책 과제를 발굴해 왔다.

산업계는 반도체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현재 약 17만7000명 수준인 반도체부문 인력이 10년 후 30만4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대학이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시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학부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에 똑같이 적용된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Mercedes-Benz Certified

이보다 쉬울 수 없다.
가장 손쉽게 만나는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변함 없는 클래스의 인증 중고차를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온라인샵에서 주문해 보세요.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편리하게, 빠르게.

- 온라인 결제 시스템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충족
- 국내 수입처 최대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 Trade-in 프로그램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 1년 / 2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www.mercedes-benz-certified.co.kr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4-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전동)